

### 野聲에서 현존으로

1951年 11月 12日, 그러니까 6·25 동란 중에 피난 살이를 하면서 「野聲」이라는 잡지 첫 호를 내놓았다. 아직 20대에서 30 개로 넘을가 말가 하는 젊은 마음들이 나라의 비운과 교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고민,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정이 밖으로 터져 나온것이 野聲이었다. 모두 神學以前이었고 만용이라던 만용이 었다. 우리 만에는 세례요한의 소리를 하고 싶은 심정에서 「들의 소리」라고 명명했으나 어떤 선배의 귀엽게 파주는 표현 맞다나 野蠻인의 소리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것은 넓게 또는 깊게 볼줄 몰랐기에 오히려 순수했는지 모른다. 그랬음인지 2천부에서 3천부로 올라갔으며 뜨거운 호응도 받았었다. 그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든 이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피난에서 환도, 그리고 소위 「평신도 운동의 모델 케이스의 창조」라는 꿈을 이룩하기 위해 남산 기슭에 자리 잡고 공동 생활 시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5年동안 1956년 1월에 마지막 호인 12집을 내는 것으로 손을 들고 말았다. 하기는 광야의 소리야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법이지 하면 자연스러운 결말이라.

12집을 내고 그해에 나는 독일로 향했다. (그때 대부분의 필자들은 이미 유학의 길을 떠났다). 神學者가 된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삶에 지쳐서 피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10年間 줄곧 성서를 理解하려는 노력만 했다. 그중에서도 관심사는 예수에게 접근해 보고 싶은 것이 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내가 산다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려고 했다. 누구보다 「볼트만」저서에서 또는 그 학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확실한 결론을 갖기 전에는 귀국하지 않는다」라는 初志는 어리석었다. 하여간 귀국 할 때에는 「결론이 나면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고 왔다. 한 4年가까이 어리둥절 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 염원은 다시 잡지를 통해서 대화를 해 보는 것이 었다. 그러한 소원을 무턱대고 감행해 보는 것이 바로 이 現存 발행이다.

이 잡지 이름 때문에 設問으로 또는 만나사 많은 의견을 들었다. 野聲이란 이름 그대로 하라는 충고도 있었으나 결국 이 이름으로 낙착됐다. 야성을 하기에는 인제는 「철」이 들었고 그렇다고 결론 같은 이름을 붙이기에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좀 딱딱한 이름이 나와 「現存」이라고 했다. 나대로는 「現存」이란 우선 「빈 것」으로 이해 한다. 그래서 하나의 可能

性으로 본다. 따라서 이 잡지도 결론이 아니라 可能性으로써 계속 독자와 더불어 삶의 意味를 추구해 보자는 것이다. 자세는 野聲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즉 求道者의인 입장이다. 그 이름 처럼 이 잡지가 大衆性이 없을 것을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 되도록 많은 讀者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大衆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싶지는 않다. 나도 大衆의 한 사람이니 참 마음에서 정직하면 大衆의이 되겠지, 또 나 스스로 그렇게 폭 넓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단 몇 사람이라도」하는 기대를 걸고 내 놓기로 했다. 野聲때에 함께 쓰든 친구들은 자기 자기 분야에서 바쁘다 꼭 함께 써야 한다는 전제는 불가능 하다. 그렇다고 다른 많은 저명한 필자의 글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저 아껴주는 마음으로 또는 간청에 못 이겨서 주는 글은 소중하게 받아 실리겠다. 그러니 本人이 주로 쓸 작오를 하는 수 밖에 없다. 「現存」은 일반적인 雜誌性格은 없을 것이다. 되도록 여러 分野를 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한면이나마 밝혀볼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겠다. 時事性도 없을 것이다. 그런것은 많은 다른 잡지에 기대하면 된다. 그저 성서를 통해서 본 삶, 그것도 一面만을 계속 추구하는 정열이 그치지 않는한 이 잡지는 스스로 보람을 느낄 생각이다.

### 추구하는 群像의 分類

지난 5月 마지막 週間 偶然하게도 세 가지 公開 모임이 있었다. 서울 운동장

에 열린 연합전도 대회와 延世大에서 개최한 「技術科學의 神學」이라는 강좌와 향린교회 16주년 기념강좌로서 신앙의 기본 문제로서 啓示, 구원, 신앙, 교회,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열린 것이다. 同時에 열린 세가지 다른 性格의 모임이 서로 침해됨이 없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안다. 세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나 셋 중 무엇이 더 시급한것으로 아느냐로써 聽衆이 자연스럽게 나뉜 것으로 짐작한다. 향린교회의 강좌는 金龍玉, 朴鳳珉, 金在俊, 민경배 諸교수와 그리고 本人이 담당했었다. 제목이 전부해서 聽衆이 있겠느냐 하든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聽衆은 진지했다. 단 한마디도 빠지 않고 들으려는 그 눈동자에서 나는 저들이 무얼 추구하느냐를 보았다. 現存의 讀者는 누구일까? 생각하던중 바로 저들일 것이라고 생각함과 함께 現存은 바로 저들이 追求하는 문제를 밝혀주는—이것은 물론 한 분야다—것으로 그 임무를 삼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기본문제를 해석사적으로, 다시 생각 해보고 다시 성서에 되돌아가서 묻고 그리고 새로운 해석과 理解의 가능성을 추구해 본다.」 이것을 이 잡지의 方向으로 삼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했다. 이해란 삶과 유리된 관념일 수 없다.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해에만 그칠 수는 물론 없다.

### 人間은 觀念의 奴隸?

神學을 전공한 사람은 敎理에 대해서 무관심 할 수 없다. 敎理史는 성서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敎會의 자기 방위 또는

立場의 表明을 위해서 이루어진 흔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敎理에 대한 正當한 處理가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문가에 선 사람들에게 敎理가 觀念化되어 일보도 전진 못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나는 한달 사이에 大邱 啓明大學, 서울女大, 梨花女大 등에서 연속적인 集會에서 얘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성서를 직접 삶과 관련 시킬 때에는 쉽게 납득하다가도 질문에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이 敎理的인 질문에 쏠린다. 많은 靑年들은 敎會,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썩 회의적이고 등한하다.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교리적인데 사로 잡혀서 거기에서 停止돼 있거나 또는 절대처럼 固守하고 있다. 그 교리가 당신에게 意味가 있느냐고 물으면 말이 없다. 나는 지금 내게 意味없는 在庫品같은 것은 버려 버리라고 해도 좀처럼 납득하지 않는다. 삶과는 유리된 敎理가 觀念化되어 意識構造의 한구석에 자리잡혀 化石이 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면 生動한다. 그런것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그들이 그런 敎理에서 돌러나게 하는 길은 역시 그 敎理를 재해석해 주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에서 풀어 놔주지 않고는 다른것이 받아지지 않는다. 그런 절무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이 질문은 많은 靑年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예로 생각한다.

###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의 청년) 패기가 없고 위선적인 면이 많다는 말을 흔히 들읍니다. 우리는 죄라는 관념에 사로 잡혀 행동에

너무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사실 교회는 수없는 죄의 중목을 나열함으로써 인간을 죄에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행위만 제외 하고선 무슨 일이나 마음껏 거리낌 없이 행해도 좋지 않았습니까? 자꾸 죄 의식을 강조해서 젖먹는 시절까지 돌이켜 보게 하고 억지로라도 성 냈고 교만 했고 시기 하고 미워했던 일들을 반성케 하는데 결국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罪를 규탄하기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교회를 통해서 죄 의식만 높아졌다면 교회가 잘못 가르쳤거나 당신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오히려 당신을 죄와 죄의식에서 解放시키자는 것이 그 中心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것을 죄라고 규탄함으로써 위축감을 느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을 왜 들추어서 나를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는 죄로 생각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옳기는 하다면! 한다면 교회가 그런것을 규탄하기 전에 당신자신이 당신을 규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상 당신이 열거한 「죄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것은 교회가 말하기전에, 사회윤리가 말하기전에 당신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죄들」을 세삼 들추어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추어 낸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서는 원칙적으로 「죄들」(복수)을

말하지 않고 죄(단수)를 말합니다. 즉 하나하나의 行爲를 是非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存在自體를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存在自體가 罪의 支配아래 있다는 뜻에서 人間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성서적 표현은 결국 너는 너를 상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죄들」을 지적하고 규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은 喪失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가령 바울은 異邦人들의 죄의 項目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저들이 지금의 자기 삶이 自明的이고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너는 네 本來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意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죄들을 규탄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福音을 믿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받아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現在의 自己充足의인 삶, 그렇기 때문에 閉鎖的인 삶을 開放해서 새것을 받아드리게 하자입니다. 바울은 죄(단수)를 엄숙히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죄는 倫理的 相反概念이 아니라 믿음의 상반개념 즉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未來, 새것에 대해서 패쇄적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규탄함과 同時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죄 또는 죄의식에서의 自由한 현실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罪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죄란 어떤 것인가를 가장 뚜렷히 나타낸 것은 예수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죄들을 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윤리 또는 종교가 규탄한 소위 죄인들을 무조건 풀어주었고 오히려 저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 反面에 當時에 죄를 규탄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종교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義人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宣言 했습니다. 이것은 참 罪人은 창기나 세리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규탄하고 있는 저 종교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義人」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義人, 죄인에 「소위」라는 말을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소위 죄인의 편에 서서 소위 義人의 죄를 규탄했을까요? 소위 義人은 倫理的으로 罪人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의 倫理나 宗教的으로 쌓아 올린 功績(過去의인것)에 定座하여 自足하므로써 未來(새것)와의 관계에서 패쇄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自己 삶을 이미 손에 들어온것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참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罪人은 倫理的으로 죄인임에 틀림 없으나 스스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現在에서 自己充足의이 아닙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새로운 可能性(未來)를 向해서 開放的입니다. 가진것에 依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오고 있는것에 依해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즉 받아드릴 태세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죄아래 있으면서 그것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들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뜻에서 복음



기자는 창기나 세리가 유대 종교지도자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란 밖에서 규정 못합니다. 자기만이 압니다. 그런데 行動하나 하나의 잘, 잘못이나 가려내는 데서는 참 죄의식을 못합니다. 정말 참 죄를 깨닫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경험한자(새것을 만난자 참 믿는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과거의 자기를 뒤돌아보고 비로소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지는 것입니다. 만 말로 하면 잃어 버린

自己를 되 찾았을 때 自己喪失의 過去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초라함을 同時に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초라한 상태에서 이미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예수와 새삶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미 罪에서 自由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죄를 규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對話>의 난은 특히 독자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현존>의 내용이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중시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저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면서.....

## ◆ 편집 후 기 ◆

◎예상보다 창간호가 늦어졌읍니다. 독촉하는 문의에 일일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힘이 미치는 한까지 매달 내 보낼 작정입니다.

◎이번호 「강단」은 현존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펴 딱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울 現存에 많은 자극을 받았읍니다만 느낀 것만큼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공관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되도록 쉬운말로 공관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추구할 작정입니다.

◎김재준 박사, 홍창의 박사의 글

을 실립니다. 김박사님 끝은 신앙문제가 길고, 자세하게 취급되었으면서도 삶과 직결시킨 산 말씀으로 본인 자신이 감격했습니다. 홍박사는 平信徒 醫學者입니다. 전에 野聲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호 外國학자의 논문 한편씩 소개하기로 했는데 첫번째로 「텔리히」의 성서관을 실립니다. 긴 논문이나 중요한 문제로서 특히 신학도들에게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對話」는 生活記錄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은 대화입니다. 여러분과의 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紙面을 채우기 위한 글이 안되기 위해서 誌面에 신경을 쓰지 않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 現 存

### 창 간 호

1969年 6月 25日 인쇄

1969年 7月 1日 발행

편집 겸 발행인	안	병	무
발행	현	존	사
인쇄	광	명	인쇄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64의 11

대체 서울 1526 번 전화 (28) 9141 (93) 1465

등록일자 1969年 4月 11日(등록번호 제라-1140호)

값 100 원